

FINPORTS

MONTHLY REPORT

NOVEMBER



MONTHL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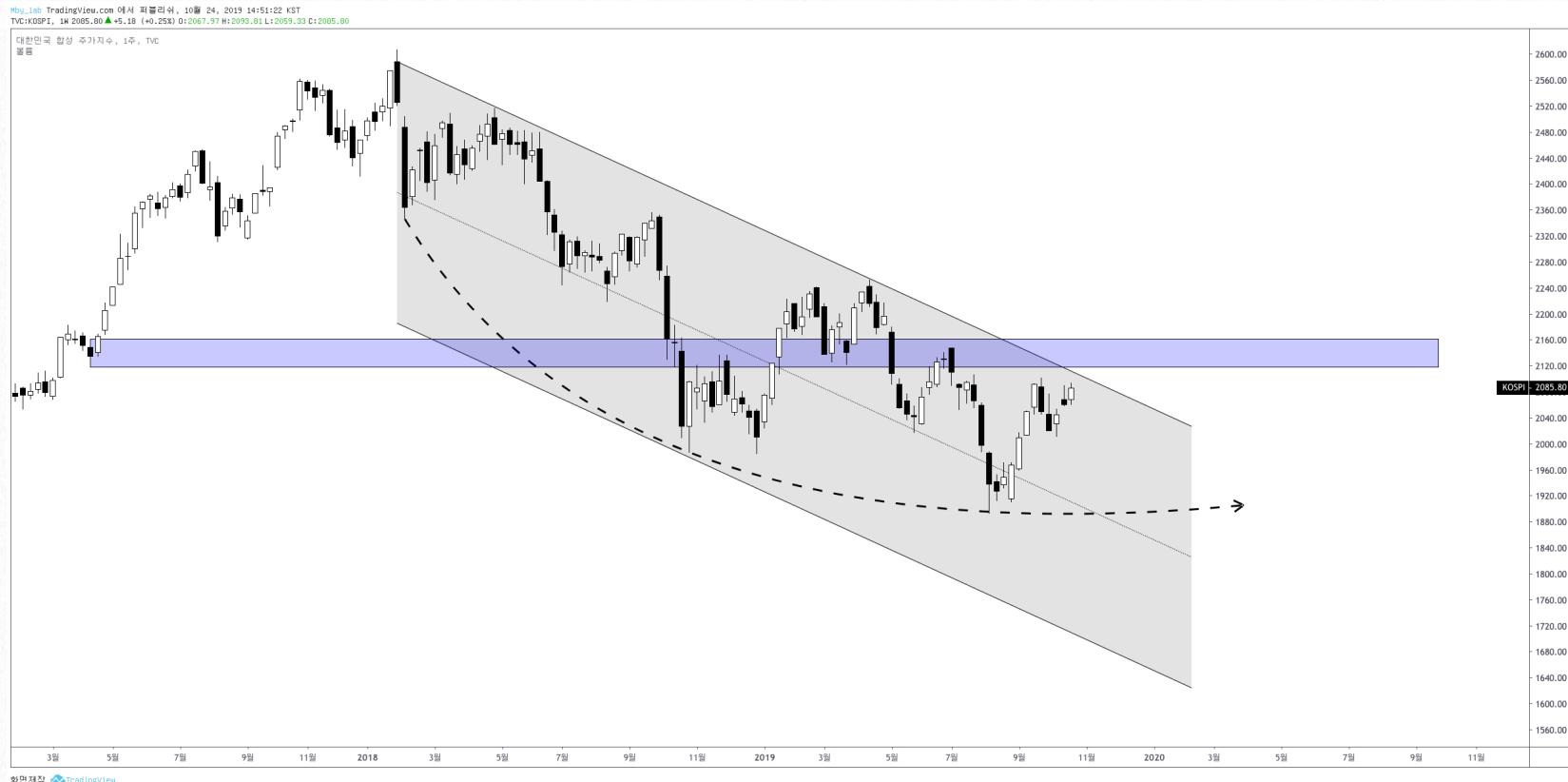
국내시장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다.”

- Peter Lynch-



(1) 코스피 (KOSPI)



[분석] 코스피는 현재 약 2,000 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초 대비 약 5.5%의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만에 발동된 8월의 사이드 카 이후 반등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2,100 포인트의 장벽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하락채널에 위치해 있으며, 추세를 전환 하기 위해서는 2,100 포인트의 두꺼운 장벽을 돌파 해야만 한다.

[전망] 코스피의 2,100 포인트 돌파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며, **1) 2,160 2) 2,250** 포인트를 단기 고점갱신 구간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2,000 포인트 선을 지키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2) 코스닥 (KOSDAQ)



[분석] 7월 형성한 541 포인트로 부터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은 현재 640 포인트 저항선을 돌파한 후 660 포인트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코스닥의 움직임은 대부분 과거 시장에서 형성된 갭(Gap : 장 마감 후 시가에 따라 형성되는 직전 봉과의 공간)에서 나타난 포지션의 ‘청산’을 통해 지지 / 저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저항선으로 판단되는 구간은 약 725 포인트이다.

[전망] 코스닥은 2018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단기적 고점을 형성 하였는데, 이후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준 지지구간과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코스닥이 725포인트를 갱신 하더라도 돌파의 움직임이 없다면 **1) 640 2) 500 포인트** 지지를 지키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기적 흐름



[분석] 하락추세 저항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2020년 1/4 분기 까지 반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2,200 포인트의 저항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구간이 완전한 추세전환의 기준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매도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은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수렴 / 확산의 움직임이 현재와 유사한 과거의 차트를 현재의 차트와 비교한 것으로 단기 / 중기 / 장기 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수렴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급락의 움직임이 현재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코스피가 2,200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최대 1,800 포인트 지지선을 확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MONTHLY REPORT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리뷰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 Andre Kostolany-



1. 신용시장



[들어가기 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리뷰는 19년 6월에 발간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의 완화에 따른 변화된 시장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석] 6월 기준 금융안정지수(FSI)는 주의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DSR제도의 도입으로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대출의 증가와 채권규모의 확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으로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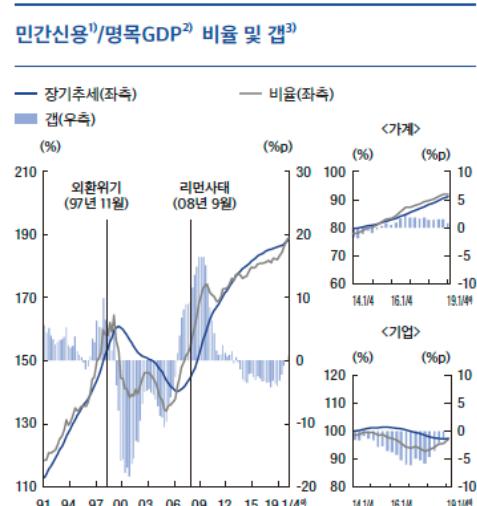
[결론] 신용시장의 전체적 추세는 증가세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의 움직임과 기업신용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내부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는 완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악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면,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수준의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유지한 상태로 기업의 신용 위험 리스크 대비 정책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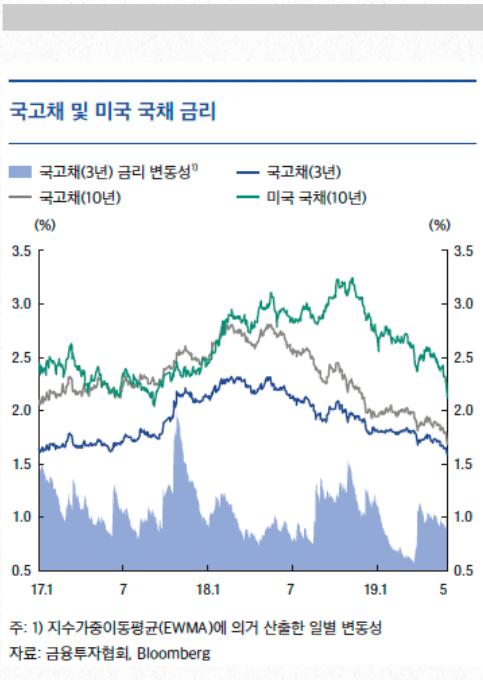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상황	
2018년 3월	은행권 DSR 100~150%로 자율 운영
10월	금융당국, 은행권 '고위험 DSR' 기준 도입 예정
10월	제2금융권에 DSR 시범 실시
2019년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고위험 DSR' 기준 도입 예정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따라서, 정부는 현재 수준의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유지한 상태로 기업의 신용 위험 리스크 대비 정책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2. 자산시장



[분석] 국고채 금리는 미국등 주요국 금리와 함께 하락하였다. 최근 FED의 추가 금리 인하 발표의 영향으로 국내 금리 또한 1.25%로 추가로 인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증가된 가계부채 및 기업대출에 대한 상환 리스크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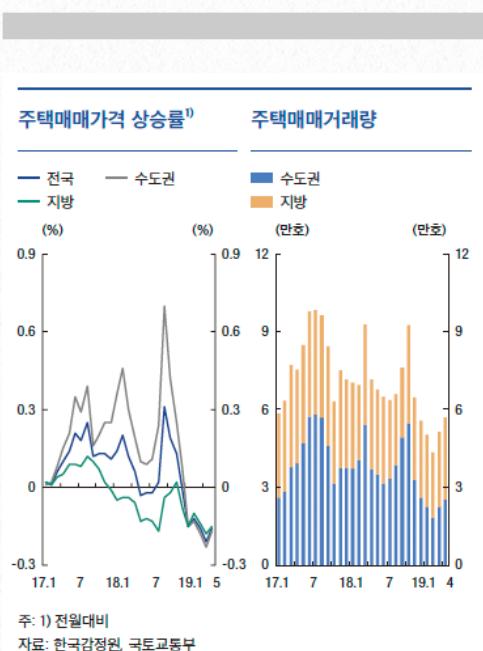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AA- 등급의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A-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를 역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는 미·중 무역전쟁 악화로 인해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완화된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코스피의 가격 변동성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9월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매수심리 위축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결론] 금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상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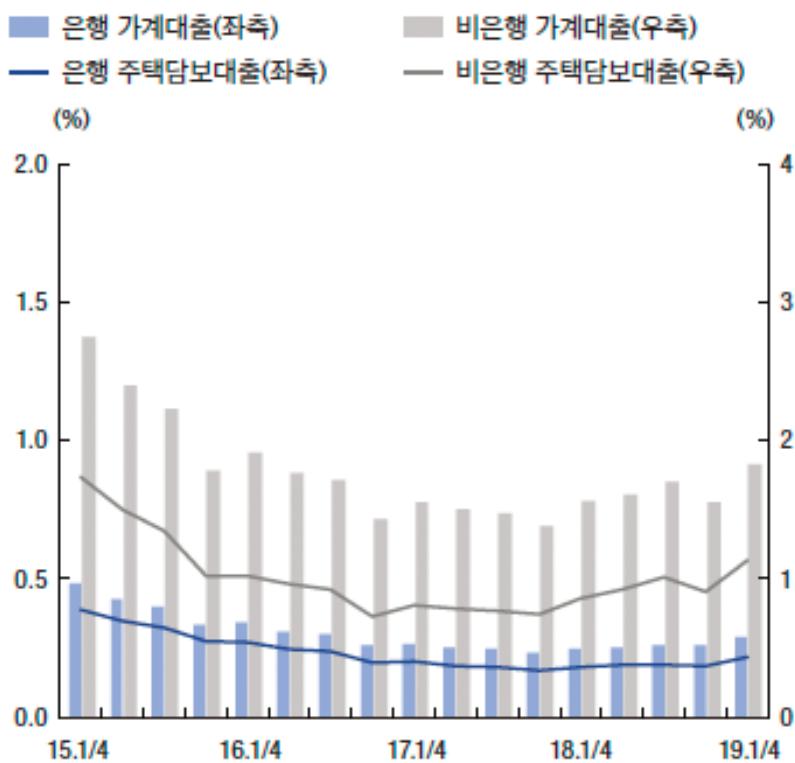
주택매매시장은 국내 / 외 시장의 이슈가 모두 완화되어 안정권을 찾기 전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하며,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계신용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 -14.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¹⁾²⁾ 가계대출 연체율³⁾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
(판매신용 제외)·할부금융·리스자산 포함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분석]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아졌으나, 채무상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전반적
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18년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 고위험가구가 주를 이루는 비은행금융기관
의 연체율의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은 주택담보 대
출 비중이 큰 소득계층의 주택가격 하락으로부터

MONTHLY REPORT

해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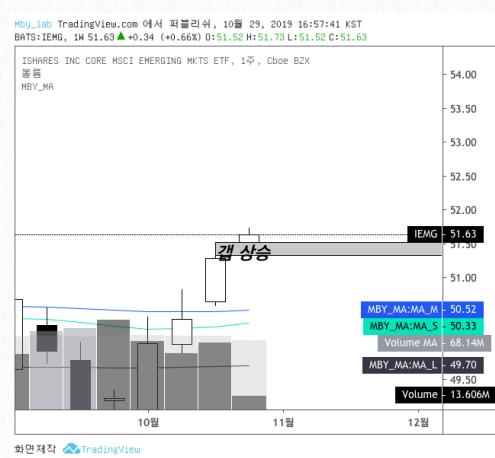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 Andre Kostolany-





이머징 마켓 갑상승



1. 나스닥(IXIC)

[분석] 나스닥은 9월 30일 지속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감 속에 이동평균선 25일 선에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발표된 미·중 무역전쟁 완화 이슈와 함께 3주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군 특수부대의 특수작전을 통해 IS의 수장 알 바그다디가 사망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재기 되며, 갑상승과 함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나스닥은 지지선1을 지키며 추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FED의 금리인하 발표를 통해 긴장하고 있던 국제유가와 이머징 마켓의 주가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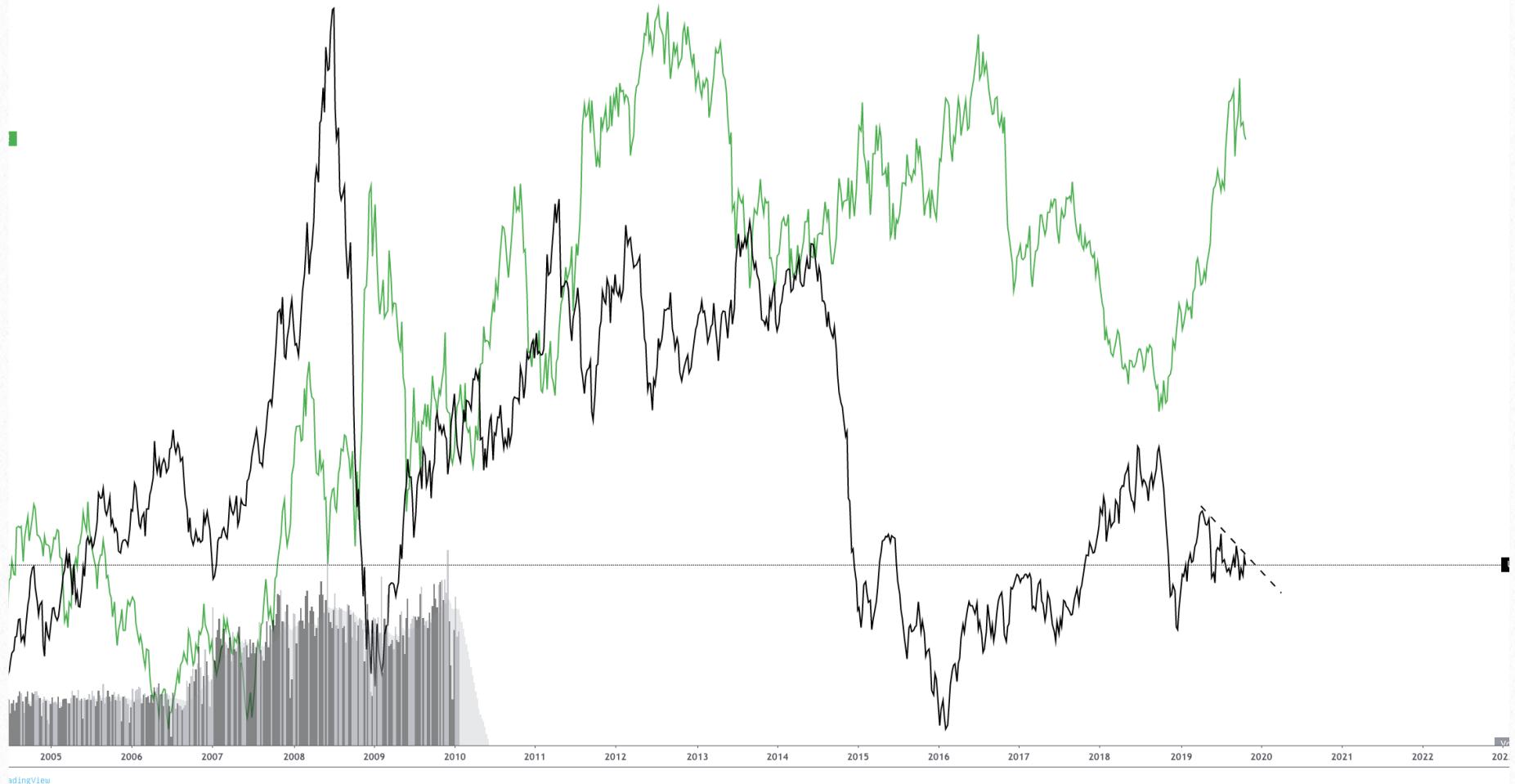
나스닥은 현재 주가 반등과 함께 고점을 높이고 있으며, 9,000 포인트의 장벽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 그림은 서로다른 기간동안 주가 변동률을 비교하여 장기적 추세를 예상해볼 수 있는 퀸트모델의 기준선을 나타낸 것이며, 2000년도 기준 총 2번의 주가하락의 시그널이 되었던 데드 크로스와 주가 상승을 기대 할 수 있었던 골든크로스가 2번 나타나있다.

2010년도 초 발생한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는 나스닥은 경직된 국제 정세가 이완되는 추세로 미루어 보아, 추가 상승을 위한 놀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되며, FED의 단기 채권매입이 끝나는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나스닥은 현재 완화된 국제정세의 움직임으로 미루어보아 마지막 축포를 쏘아 올릴것으로 판단된다. 주가의 흐름과 양상이 99년도 말 보여준 놀림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후의 추가 상승분에 기대가 쏠린다.



2. 10년 국채 (ZN1!) / 유가 (USOIL)

[분석] 연준 (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단기채권 매입 발표와 함께 단기 채권은 단기적 급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미 · 중 무역전쟁의 완화와 브렉시트 연기등의 이슈로 인해 국제증시의 상승과 함께 상승분을 그대로 돌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국제유가는 현재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56.88포인트 저항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최대 60 포인트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국제유가는 현재 수렴 진행중이며, 주가의 흐름이 국채와 대비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스닥이 추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을 경우 채권매입의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라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